

오락적 요소 많은 '유쾌한 가족오락극'

외발자전거 타기·상모 돌리기...
1400여 관객들 탄성·박수 쏟아져
볼거리 치중 중국 경극 피로감
광주시립극단, '멍키열전' 마무리



광주시립극단은 1년 5개월의 파행을 딛고 11회 정기공연 '멍키열전'을 지난 8일까지 3일 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무대에 올렸다. (광주시립극단 제공)

광주시립극단이 1년 5개월의 공백을 깨고 지난 8일 '멍키열전' 공연을 마무리했다. 4회에 걸쳐 열린 이번 공연은 1400여 명이 관람했다.

이 작품은 러시아 국립 슈우킨 연극대학 창설 100주년 기념공연으로 기획돼 지난 2014년 서울에서 초연된 뒤 지난해 대구시립극단도 공연을 했다. 배우 10명과 연출진 25명이 4개월 동안 준비한 이번 무대에는 예산 1억2000만원이 들었다. 나상만 시립극단 예술감독이 지난 5월 취임한 후 처음 극작과 연출을 맡은 작품이라 기대를 모았다.

이 연극은 원숭이의 시선으로 인간세상을 향해 일침을 가한다. 세계 우화에 등장하는 원숭이들과 유일한 인간 '베아트릭체'로 구성된 유랑극단이 겪는 각종 사건들을 꾸며진다.

배우들은 분장이나 무대 장치 전혀 없이 완벽히 원숭이를 연기했다. 공연 1주일 전 연습현장을 찾았을 때보다 이들의 연기는 더 견고해져 있었다. 출연진은 신체훈련전문가의 지도 아래 두 달 동안 원숭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했다. 빼죽 나온 입과 굽은 등, 꼬지락거리는 발가락은 영락없는 원숭이의 품새다. 원숭이와 인간 사이를 능청스럽게 오가는 그들의 연기는 폭소를 자아내다가도 묘한 씁쓸함을 남겼다.

'키친', '쥐의 눈물' 등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최용진이 연기한 '피터'는 단연 돋보였다. 카프카

소설에 나오는 집팬지 '피터'는 극 중에서 가장 지적이지만 '지나치게 진화된' 탓에 원숭이들 사이의 갈등을 부른다.

배우 최용진은 정확한 대사 전달력으로 고전에 나오는 원숭이들을 관객에게 소개했다. 동료 배우가 전동보드를 타다 넘어질 뻔했을 때는 순발력 있는 즉흥 대사로 장면을 소화해냈다.

이번 공연에는 카다리 목발에 외발 자전거, 2단 옆구르기, 상모 돌리기, 마술 등 오락적 요소가 많아 1시간 40분 내내 관객의 탄성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유쾌한 가족오락극'이라는 연극 소개 글에 걸맞게 자녀와 함께 온 관객들이 눈에 띄었다.

희곡을 통해 사회 부조리를 고발해온 나상만 감독은 이번에도 작품 곳곳에 풍자와 비판을 녹여냈다. 배사메무초 노랫말을 비틀어 세월호의 비극을

노래한 대목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상차림이 과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다. 정제되지 않은 표정의 중국 경극배우들에게 내어준 5분여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극의 몰입을 흐리는 장면을 넣기보다 고전과 소설 속 원숭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늘렸으면 나을 성싶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행동을 했던 원숭이들은 인간이 입혀놓은 '옷'을 벗어 던지고 베아트릭체와 '원시의 숲'을 향해 떠난다. 우리들은 과연 이렇듯 권력의 멍에를 뒤로 하고 떠날 수 있을까.

'멍키열전'은 오는 10월10-21일 열리는 광주문예회관 공연예술축제 '그라제'에서 1시간 분량으로 재구성된 야외극(오후 6시 30분)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와인과 함께라면 눈·귀가 즐겁다

김이곤의 11시 클래식 산책
내일 '가을 와인 콘서트'

와인과 함께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연주회가 열린다. 매달 두번째 주 화요일 열리는 광주문화예술회관 '김이곤의 11시 클래식 산책'은 오는 11일 '가을 와인 콘서트'를 마련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명품 와인에 대한 풍부한 해설과 함께 와인을 접하며 혀를 만족시키는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여진, 첼리스트 백우선, 기타리스트 안형수의 로맨틱 앙상블 연주는 이들 나라와 와인 문화를 이해하는데 더없이 좋은 안내가 될 것이다.

문노의 '사랑의 찬가' 로이거 '잠미빛 인생',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를 통해 프랑

스 '파리지앵'의 정취를 만끽하고 비발디 음악으로 이탈리아 여행을 떠난다. 로드리고의 '아랑훼스 협주곡' 중 2악장 아다지오와 그라나도스의 '스페인무곡 5번 안달루사'는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진면모를 보여준다.

관객들은 영화 '피노키오' 삽입곡인 '별에게'와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 미 텐더'를 통해 미국의 낭만을 접한다. 로드리고의 '가장행렬', 피아졸라의 '멋대로 탱고'는 자유분방한 남미 대륙으로 이끈다.

음악회를 기획하고 해설을 맡은 김이곤씨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 출신으로 극동아트 TV 총괄 음악감독, KBS 열린음악회 클래식 자문 등을 맡았고 수년 동안 매년 100회 이상 음악회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전석 1만원(청소년 5000원). 문의 062-613-823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가을의 길목 인도 고전음악에 취하다

'인도 까르나틱 음악회'
13일 문화전당 극장2



U.라제쉬

인도의 고전음악을 접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인도 까르나틱 음악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에서 열린다. '2018 사랑-인도문화축제'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문화전당과 주한인도대사관, 인도문화원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무대는 인도의 대표 만돌린 연주자 U.라제쉬 연주단의 남인도 고전 풍 '까르나틱' 음악으로 꾸며진다.

인도 남동쪽 카르나타카 주에서 시작된 까르나틱 음악은 발성이 무겁고 강한 '드루빠드'와 가벼운 느낌을 주는 '카할' 방식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악기 만돌린이 도입돼 세련된 연주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인도 전통 악기인 타블라, 칸지라, 모르싱의 선율도 들을 수 있다.

독일 '매직 만돌린 페스티벌'에서 최연소 연주자로 초청된 U.라제쉬는 활발한 공연을 펼쳐 2006년에는 그의 뉴욕 공연이 잡지 '더 뉴요커'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공연'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 2015년부터 개최된 '2018 사랑-인도문화축제'는 오는 16일까지 문화전당과 서울, 부산, 춘천 등지에서 열린다. 무료 관람. 문의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아-태 오케스트라연맹 2020년 총회 광주서 열린다

아시아 오케스트라들의 최고권위 조직인 아시아-태평양 오케스트라연맹 2020년 총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예술회관과 광주시립교향악단은 9월 13일 아시아-태평양 오케스트라 연맹 총회 개최 도시로 광주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예회관 측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오케스트라 연맹 총회에 참석해 2020년 차기 총회 개최지 자격을 얻었다.

아시아-태평양 오케스트라연맹 총회는 1997

년 결성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오케스트라 부문 최고권위 조직으로 12개국 60여개 단체가 회원으로 있다. 광주시향은 지난 2016년 정식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총회는 지금까지 1~2년 주기로 일본이 4차례, 중국 2차례, 호주 1차례, 러시아 1차례, 싱가포르가 1차례 등을 주관했으며 한국에서는 광주에서 처음 열린다.

광주 총회는 오는 2020년 10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피아니스트 박재연·김선주 듀오 연주회

12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박재연



피아니스트 김선주

피아니스트 박재연과 김선주의 듀오 연주회가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라흐마니노프 서거 75주년을 기념해 그의 다양한 곡들로 채워진다. 피아노 듀엣을 위한 6개의 소품 작품 11로 문을 열고 '벚노래', '사

랑의 밤', '눈물', '부활절' 등 4악장으로 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1번, Op.5(회화적 환상곡)으로 호흡을 맞춘다. 또 서주와 왈츠, 로망스, 타란텔라로 구성된 모음곡 2번(Op. 17)을 선보인다.

조선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재연은 서울 예술의전당과 광주문화예술회관 등 무대에 섰으며 우크라이나 키에프 방송 교향악단, 광주시향 등과 협연했다.

협연하는 피아니스트 김선주는 독일 필른 음대에서 교육학을 수료하고 강릉원주대, 한세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의 02-511-192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국무용제 광주·전남 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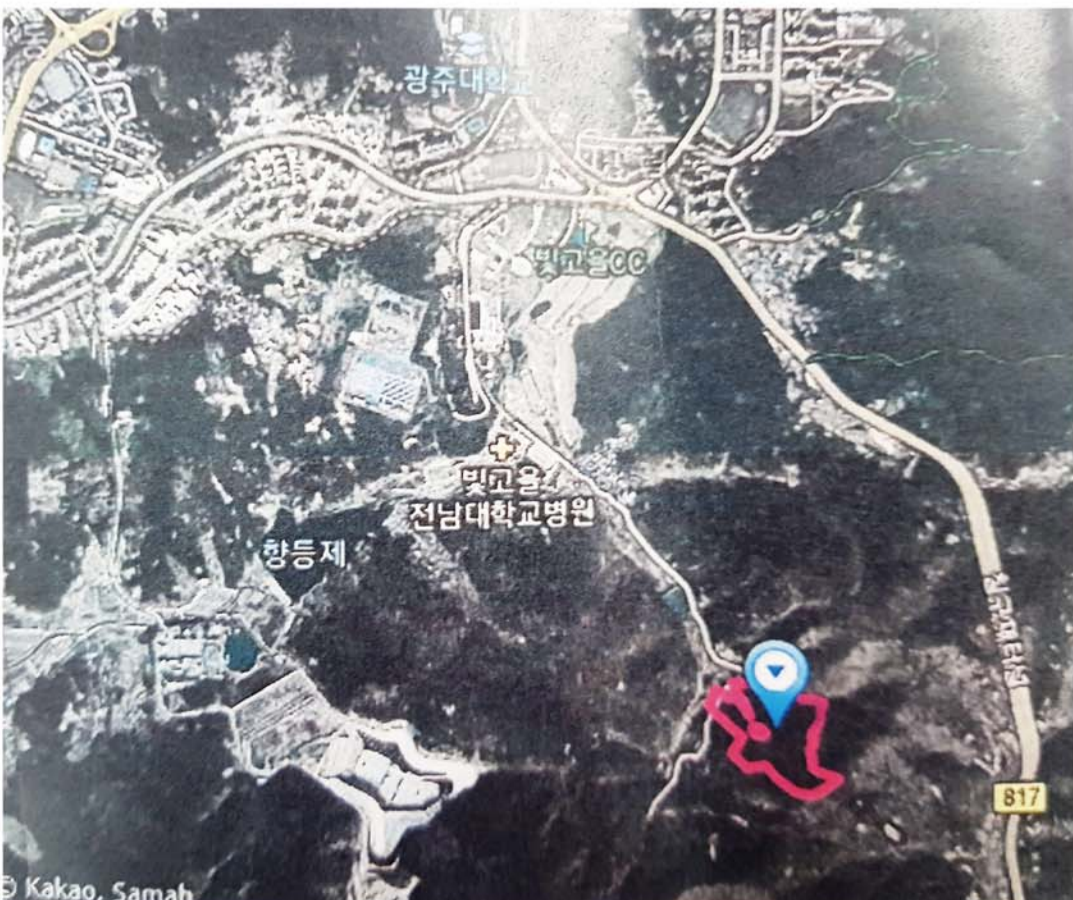
지난 8일 막을 내린 '27회 전국무용제'에서 광주·전남 대표단이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가 주최해 지난달 30일부터 10일간 충북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전국무용제'에서 광주시 대표 광주뿌리한국무용단의 '음. 양'과 전남 이란희 무용단 '8일간의 기억'이 각각 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공진희 광주뿌리한국무용단 대표가 안무를 맡은 '음. 양'은 편견과 차별이라는 이분법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회를 나비와 나방에 빗대어 표현했다. 전남 문한술 무용단의 '허가, 판'은 솔로&듀엣 부문 우수작에 뽑혔다. 또 광주뿌리무용단 '음, 양'의 무대디자인을 맡은 유승용씨와 조명 담당 김철희씨는 무대예술상을 받았다. 올해 대상의 영예는 대구 노진환 댄스프로젝트 '모던타임즈'가 안았다.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광주시지회는 지난해 이연정무용단의 '카디날의 겹'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지금까지 대통령상 10회, 금상 6회, 은상 7회 등 총 23회 수상했다. 전남도지회도 대통령상 1회와 은상 8회 등의 성적을 거뒀다.

문의. 010-6834-7400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이전비용 매도자부담)
- 문의. 010-6834-7400